



인문학 독서를 위한 학교도서관으로의 여행

소병문

우신고등학교 사서교사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회 위원
paul7493@hanmail.net



‘인문학이 대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맞는 말 같다. 수서를 위해 서점에 가거나 좋은 연수, 강의의 주제를 두고 보더라도 인문학과 관련된 것이 많다. 그렇다면 인문학 내용의 주를 이루는 문사철(文史哲)에 대한 사회의 관대함은 어떨까? 그 답변은 가까이 있다. 문사철 관련 학과에 진학하겠다는 뜻에 보이는 사회의 반응이 그 답변일 것이다. 인문계 고교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네 의지에 맞게 선택 관련 학과에 진학하라고 권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문계 학과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순수학문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대학에서 충족하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호의적이지 않다.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은 학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기관이기보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최선의 수단인 것 같다. 이런 흐름은 취업률이 낮은 인문계 학과를 통·폐합하는 대학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에서는 인문학을 우리 사회의 온갖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참 불편하다.

관중을 떠나 도서관은 정규 학교 교육 이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재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재교육기관으로 도서관이 인문학을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정독도서관의 [Book村] ‘인문학 스터디’가 있다. 월별 특화된 인문학 주제를 일관성 있게, 단순 정보전달 수준의 저자 강연이 아닌 스터디 수준으로 끌어올린 프로그램이라는 평을 들었다.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하는 교육재(教育材)로 인문학은 참 매력적이다. 비단 공공도서관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도서관에서도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높다. 특히 중·고등학교 교과목이 바로 인문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기획하기에도 유리하다. 그런 흐름에서 이번 여름방학 때 인문학 특강을 인근 공공도서관과 함께 진행한 적이 있다. 이름을 말하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저자를 초빙해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다. 참가대상은 우리 학교뿐 아니라 구로 관내 다른 고등학교 학생도 포함했으며 호응은 좋았다. 워낙 저명도 있는 분이고 강의를 잘하는 분이었기에

당연한 결과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들었던 주관적인 생각이 있다. '사서로서 우리는 결과의 중계자 역할 밖에 못하는 것일까?'란 고민이다. 사서는 한 분야에 대한 막대한 지식보다는 열더라도 여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두는 것이 좋다고 하신 어느 분의 이야기를 두고 볼 때, 사서에게는 중계자 역할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단순 중계역할만 하기에는 사서로서 전문성에 대한 회의가 드는 건 지나친 자학일까? 사서 입장에서 우리는 인문학의 텍스트 대상에 대한 상당히 높은 물리적 접근성이 있으며, 정보학 영역으로써 리터러시(literacy)를 방법으로 설정하고 텍스트를 볼 수 있다면 단순 저자 초청 이상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정보의 종합과 표현 방법으로 '쓰기' 영역을 주목하였다. 제51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도서관연구소가 기획한 '사서를 위한 글쓰기 특강'이나 2013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연구과제로 '도서관의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같은 흐름이 단순한 중계자로서의 사서를 넘으려는 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리터러시로 대표되는 읽기와 쓰기 능력개발은 도서관을 통할 때 최선이 된다. 읽고 쓰는 대상이 책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책 읽기와 글쓰기 프로그램이 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체는 사서가 아닌 경우가 많다. 주로 읽기, 쓰기 전문가를 초빙하고 이를 지원하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중계자가 아닌 생산자 역할을 하지 못할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우리가 말이다.

단순히 고민만 하면 안 된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 우신고등학교도서관에 근무하면서 교과 선생님들과 진행한 프로그램이 있다. 개인과제연구(Individual Research)라는 일종의 논문쓰기 프로그램이다. 5년 차에 접어든 상기 프로그램에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로서 정보활용단계를 적용해 참여하였다. 개인과제연구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관심분야를 연구주제로 선정하여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논문형식에 맞춰 그 결과물을 완성해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이를 해석하고, 분석해 글로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 학교도서관과 공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창의적 글쓰기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위 프로그램을 만족할 수준으로 따라오는 연구결과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만큼 고등학생 입장에서 쉬운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말이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올해 개인과제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가운데 인상 깊은 학생이 있다. 역사 과목을 좋아한 문과생이었다. 자신이 관심 있는 시대영역(삼한시대)을 현 역사 교과서에서 상당히 빈약하게 다뤘다는 판단을 했는지 이를 연구주제로 삼아 과제연구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학생은 연구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원을 접하고 원전과 원문자료 읽기를 통해 배운 즐거움을 이야기했다. 그가 인용하고 접한 참고자료의 수준은 고등학생 이상이였다. 매우 놀랍고 뿌듯했다. 그렇다고 그를 지도한 입장에서 필자가 한국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방법을 소개했을 뿐인데 연구주제를 과제로 삼아 자기주도적으로 찾은 것이다.

생각해봤다. 개인과제연구프로그램에서 사서로서 한 역할은 리터러시의 구체적인 실현인 정보활용단계를 소개하고 그에 맞춰 지속적인 관리를 했을 뿐이다. 연구자별 구체적인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문 입장에서 단순히 방법만 제시한 것이 사서교사인 필자의 역할이었다. 연구주제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은 연구자 자신의 몫이었다. 인문학을 도서관에 적용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인문학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결과로서 소개하는데 그치기보다는 이용자 스스로 인문학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어떨까 한다. 그 경험에는 읽기와 쓰기를 활용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함께 고민해야 하지만 말이다. ●